
일반논문

www.kci.go.kr

20세기 초 외국인 기록물을 통해 본 고소설 이해 및 향유의 실제*

- *The Korea Review* 수록 'Korean Fiction'을 중심으로 -

이 민 희

(강원대 국어교육과)

1. 들어가며

최근 고소설의 생산, 유통, 소비 등 문학사회학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짧은 시간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복원, 또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취급 자료의 제약과 부족 때문이다.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당대 소설 독서문화와 어문생활사를 재구할 수 있는, 진전된 논의는 사실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8023534)

주제어: 헐버트, 아손 그랩스트, 낭독, 요전법, 고소설 향유양상, 독서문화
'Korean Fiction', *The Korea Review*, Hulbert, Arson Grebst, Gososeol (Korean old novel), documentary records of foreigners, reading culture, oral literature, foreigner's perspective of Gososeol

본고는 이런 연구의 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국인이 한국에 관해 쓴 기록물에 주목하고자 한다. 개항 이후 한국에 들어와 살았던 선교사, 외교관, 기자, 사업가 등이 한국에 관해 남긴 기록물이 적지 않은 데다 이들의 기록물 중에는 고전문학과 고소설의 풍경을 서술해 놓은 자료 또한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¹⁾ 비록 외국인(특히 서양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라 거기에선 선입견 또는 부분적 이해로 인한 잘못된 평가나 왜곡, 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외국인의 시선 역시 고소설의 문학현상에 관한 당대 담론과 의미 지평, 그리고 당대 의식수준을 보여주는 긴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이 남긴 기록물²⁾ 중에서 본고는 고소설 자체 또는 당대 고소설 독서문화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 자료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헬버트(H.B. Hulbert, 1863~1949)의 저서 『대한제국멸망사』(*The passing of Korea*)³⁾(1906) 수록 ‘소설’(fiction) 편에서는 우리 고소설의 역사와 작품,

- 1) 외국인 기록물들은 대개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 쓴 것으로, 외국인의 눈에 포착된 것들이 그 이전 시기, 즉 전근대기의 고소설 향유 양상과 상황까지 적실히 보여주기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고소설 독서와 출판 및 유통이 1920~30년대까지 활발히 이루어졌다. 따라서 아쉬운 대로 외국인들의 기록물은 근대 이전 시기의 소설독서 및 유통문화를 살피고,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의 소설 향유 방식을 이해하는 자료로서 유용하다 하겠다.
- 2) 현재 분야를 막론하고 한국을 소재 삼아 쓴 외국인 기록물로는 12,000여 종을 헤아리고, 그중 한국을 주제로 해 쓴 저작물은 번역본과 미 번역본을 포함해 150여 종에 이른다. 이는 단행본으로 간행된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정성화(2005), 『한국 관련 서양고서』, 명지대출판부 ; Sung-Hwa Cheong · Alexander Ganse, *Bibliography of western language publications on Korea 1588~1950*, Seoul ; Myongji Univ. Press, 2008 참고.
- 3) 『대한제국멸망사』는 헬버트가 20여 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보고 느낀 한민족의 특성, 그리고 구한말의 사회상과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 낸 역저라 할 만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애정을 갖고 한국의 역사, 사회, 종교, 문화, 문학, 풍습 등을 두루 소개하고 있다. 『대한제국멸망사』 내용 중 한국문화에 대한 부분은 잡지 *The Korea Review*, *Korea Repository*,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등에서 옮겨온 것들이 적지 않다. 참고로 *The Korea Review*는 헬버트가 1901~1909년까지 직접 편집, 출판한 감리교계 월간지이다.

작가, 그리고 구비문학과와의 관계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논의를 펴고 있어 당대 고소설관과 향유 양상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대한제국멸망사』 수록 ‘소설’ 편이 실은 이미 1902년에 헐버트가 편집·간행한 *The Korea Review*에 ‘Korean Fiction’이란 제목으로 실렸던 글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Korean Fiction’에는 이 글을 쓰게 된 동기까지 밝혀 놓았는데, 미국에 돌아가 1906년에 간행한 『대한제국멸망사』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이로 본다면 1906년 글은 1902년 글을 일부 수정해 전재(全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외국인이 파악한 고소설 유통과 독자 문제, 시대별 주요 작가와 작품, 그리고 구전 서사 및 판소리와 소설의 관계에 관해 *The Korea Review*에서 다룬 ‘Korean Fiction’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까지 학계에서 *The Korea Review*의 ‘Korean Fiction’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고소설관을 본격적으로 다룬 적이 없었다.⁴⁾ 따라서 본고에서 처음으로 이를 다루는 것이 된다. 외국인이 당대 우리 고소설과 고전문학에 대해 갖고 있었던 인식 세계와 시선의 일단을 가늠해 보는 좋은

4) 기존 연구 중에는 외국인 기록물에서 세책 고소설의 유통 및 독자 문제를 끌어낸 마이클 김(2004)의 논문(「서양인들이 본 조선후기와 일제초기 출판문화의 모습 : 대중소설의 수용과 유통문제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19집, 열상고전연구회, 173~198쪽)과 제임스 게일의 한국학 관련 저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이상현(2009)의 학위논문(『제임스 게일(James Scarth Gale)의 한국학 연구와 고전서사의 번역 : 게일 한국학 단행본 출판의 변모와 필기, 야담, 고소설의 번역』, 성균관대 박사 학위논문)과 김승우(2011)의 논문(「구한말 선교사 호머 헐버트의 한국시가 인식」, 『한국시가연구』 제31집, 한국시가학회) 등을 주목할 만하다. 특히 김승우는 헐버트의 시가인식 문제를 다루는 자리에서 ‘Korean Fiction’에 나타난 헐버트의 산문관을 비교, 서술하면서 그 글의 특성까지 함께 밝혀 놓았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아직 헐버트의 고소설관 내지 고소설 관련 진술을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를 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고는 헐버트의 고소설관이 집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Korean Fiction’을 중심으로 헐버트의 관점과 주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살핀 첫 번째 작업에 해당한다.

자료가 된다.

둘째, *The Korea Review* 수록 ‘Korean Fiction’은 아직 번역본이 없다.⁵⁾ 본고에서 대상 자료를 처음으로 번역해 소개하는 것이 된다.

셋째, ‘Korean Fiction’의 전문(全文)을 소개하되, 특별히 문제적 서술 내용이 담긴 문단을 위주로 논의를 확대,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기존에 간과했거나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100여 년 전의 고소설 향유, 유통 양상을 보다 실상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고소설 향유와 관련한 아손 그랩스트의 글은 본고에서 처음 소개하는 것으로 자료 부족을 메울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소중하다.⁶⁾

2. *The Korea Review* 수록 ‘Korean Fiction’ 내용 분석

The Korea Review 수록 ‘Korean Fiction’은 첫 문단에서 글을 쓴 이유를 밝히고, 그 다음 문단부터 고소설의 역사를 시대별로 개관한 후 구비문학과 고소설의 관계에 관해 서술해 놓았다. 이를 통해 100여 년 전에 외국인이 우리의 소설 문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5) 1906년에 뉴욕에서 처음 간행된 험버트의 *The Passing of Korea*(New York : Doubleday, Page & Company)는 이미 신복룡 교수에 의해 번역된 바 있다(험버트(2006), 신복룡 역, 『대한제국멸망사』, 집문당). 그런데 『대한제국멸망사』에 실린 ‘소설’(Fiction)은 1902년에 발표된 ‘Korean Fiction’과 달라진 부분이 더러 보이며, 번역 역시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복룡 교수의 번역본 대신 필자가 직접 번역한 것을 가지고 본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6) 아손 그랩스트의 방한기(訪韓記)가 최근 번역, 소개되었다(아손 그랩스트(2005), 김상열 역, 『스웨덴 기자 아손, 100년 전 한국을 걷다』, 책과 함께). 이 책에서 판소리 광대가 판소리를 들려주는 장면과 전기수의 고소설 낭송 현장을 관찰한 내용이 자세 히 기록되어 있다. 이는 100년 전 고소설의 구비 전승되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랩스트의 글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① 몇 주 전, 한국 문학에 대한 글이 유명한 상하이 간행물에 실렸다. 그 첫 번째 문장은 “한국은 소설이 없는 나라다.”였고, 한국에는 지난 천 년 간 직업적 소설가가 없었다고 했다. 우리의 목적은 이러한 언술이 과연 정확한지를 따지고 묻고자 함에 있지 않다. 다만 이러한 언급은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공평하게 느껴질 만한, 과연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음을 말하려는 데 있다. 이 말들이 만약 수정되지 않는다면, 한국에는 소설의 예술이 없다는 인상이 불가피하게 남을 것이다. 사실과는 굉장히 먼 그런 인상 말이다.⁷⁾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자못 심각하다. 외국 잡지에 한국 소설 관련 기사가 실렸는데, 잘못된 내용으로 인해 잘못된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쓴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헐버트가 문제 삼은 기사는 게일(Gale) 선교사가 상하이 영문 주간지인 *The North China Herald*에다 “한국에는 소설이 없다”는 내용으로 쓴 기사(「Corean literature」)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글은 게일의 소위 ‘한국 소설 부재론’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글인 것이다. 게일 선교사는 헐버트와 마찬가지로 수십 년간 한국에 머물며 한국학 연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한국에는 소설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한국문학의 본령이 한문학에 있다고 보고, 소설이 역사와 한시에 비해 수준이 떨어질 뿐 아니라 중국문헌의 범주 안에 종속되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⁸⁾ 헐버트와 게

7) A few weeks ago there appeared in a prominent Shanghai paper an article on Korean Literature, the first sentence of which reads as follows : “Korea is a land without novels”, and further on we read that during the last thousand years there has been no regular novelist in Korea. It is not our purpose to question the literal accuracy of these statements, but they are likely to cause a grave misapprehension which would be unfair to the Korean people. These statements if unmodified will inevitably leave the impression that the art of fiction is unknown in Korea-an impression that would be the farthest possible from the truth.

8) 게일이 한문본 연구에 치중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야담과 소설(『구운몽』 등)을 번역하기까지 한 인물임을 고려할 때, 한국에 소설이 없다고 말한 진위를 좀 더 면밀히

일의 고소설 논쟁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⁹⁾

② 자신의 평생 직업으로 소설을 쓰고, 그에 따라서 그의 문학적 명성도 생기는 사람을 소설가라고 말한다면, 한국에는 위대한 소설가를 배출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① 중요한 문학 생활을 하는 중간에 훌륭한 소설을 쓰기 위해 (본업에서) 벗어나는 사람까지 소설가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한국에는 수많은 소설가가 있다. 소설이라는 단어를, 세세하게 짜인 설명과 최소한 어느 정도의 쪽수를 가져야 하는 허구의 글을 쓰는 작업으로 한정짓는다면, 한국에는 그렇게 소설이 많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② 소설의 정의를 Dickens의 『크리스마스 캐롤』(Christmas Carol)과 같은 것까지 포함시킬 수 있다면, 한국에는 수많은 소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¹⁰⁾

헬버트는 소설을 직접 정의하진 않았지만, ‘소설가’(novelist)를 전문적(직업적) 작가를 일컫는 의미로 한정지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중요한 문학 생활을 하는 중간에 훌륭한 소설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게일이 초기에 그렇게 생각했다가 후에 견해가 바뀐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추후에 다루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9) 게일과 헬버트의 고소설 논쟁 및 한국학에 대한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김승우(2011), 「구한말 선교사 호머 헬버트의한국시가 인식」, 『한국시가연구』 제31집, 한국시가학회, 26~34쪽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이를 참고할 것.

10) To say that Korea has never produced a great novelist is quite true, if we mean by a novelist a person who makes his life work the writing of novels and bases his literary reputation thereon. if, on the other hand, a man who, in the midst of graver literary work turns aside to write a successful novel may be called a novelist, then Korea has produced a goodly number of them. If the word 'novel' is restricted to a work of fiction developed in great detail and covering at least a certain minimum number of pages, Korea cannot be said to possess many novels, but if a work of fiction covering as much ground as, say, Dickens' *Christmas Carol* may be called a novel, then Korea has thousands of them.

을 쓰기 위해 (본업에서) 벗어나는 사람(a man who, in the midst of graver literary work turns aside to write a successful novel)’을 소설가로 보고, ‘세세하게 짜인 설명과 최소한 어느 정도의 쪽수를 가져야 하는 허구의 글(a work of fiction developed in great detail and covering at least a certain minimum number of pages)’이 아닌 짧은 분량의 이야기를 소설로 간주했다. 즉, 한국 고소설의 성격과 특성을 두 가지 관점, 즉 전문적, 직업적 소설가의 유무(㉠), 그리고 작품의 성격, 곧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과 유사한 성격의 작품 유무(㉡)로 나눠 이해하고자 했다. 여기서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¹¹⁾과 같은 작품이란 디킨스가 대중 낭송회를 자주 열고, 낭송회의 첫 작품으로 이 작품을 낭송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는 국내 한글소설이 낭독의 방식으로 향유된 점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근대 이전에 소설 창작을 업으로 삼았던 직업 작가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직 없다. 다만 대하 장편소설과 국문 영웅소설 등 일부 세책본, 방각본 소설의 성행과 관련해 일련의 직업적 작자층(몰락 양반 등)의 존재를 추정하는 정도로 연구가 이루어져 있을 따름이다.

1904년에 방한했던 아손 그랩스트(W. Arson Grebst)의 글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코레아는 풍부한 소설 작품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신기원을 여는 소설 가는 배출하지 못하였다. 1천여 작품을 상회하는 대중소설은 인기가 높다. 특히 그 내용 면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작품은 더욱 인기가 좋다.

11) 『크리스마스 캐롤』(1843)은 19세기 중반에 영국의 디킨스가 쓴 대표작 중 하나이다. 디킨스는 영국문학사에서 사회의 기득권과 불평등을 문제 삼고 제도를 불신하며 19세기 영국 산업혁명 사회의 그늘진 단면과 서민의 삶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담아낸 작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단편소설(Novella)에 해당하는, 근대 시민경제 사회의 욕망과 자화상을 드러낸 국문(자국어) 소설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앤드루 샌더즈(2003), 정규환 역, 『옥스포드 영문학사』, 도서출판 동인, 544~550쪽)

유럽과 마찬가지로 소설은 주로 중산층 가정의 여자들이 읽는다. 하층 계급은 거의 독서를 하지 않는 편이며, 상층 계급은 좀 더 귀족적인 문학에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대개 겉치레에 지나지 않는다.¹²⁾

아손 역시 헐버트와 유사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한국에는 소설 작품이 풍부하지만 딱히 소설가라 할 만한 이가 없으며, 소설 작품이 1천여 종에 이른다는 것은 ②에서 수많은 작품이 존재한다고 한 것과 상통한다. 또한 독자층을 세분화해 이해하고 있는 것도 헐버트의 주장과 비슷하다. 즉, 한글소설의 주 독자층은 중산층 여성들이고, 하층민들은 독서를 하지 않고, 상층민들은 한문소설이나 한문학 작품에 해당하는 귀족문학을 향유한다고 본 것은 후술하게 될 헐버트의 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¹³⁾

③ 한국의 문학사는 7세기에 초기 한국 문학의 최고봉인 최치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한국에서는 몇 명 안 되는, 한반도를 넘어서서 그 문장을 인정받은 한국인이다. 우리는 그가 『곤륜산기』(*Kon-yun-san Keui*)라는 제목으로 출판한 한 편의 완전한 소설을 그의 초기 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소설은 티벳 국경에 위치한 곤륜(Kuen-lun)산에서 여행한 한국인의 환상적인 기록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완전한 분량을 갖고 있으며, 만약 영어로 번역한다면 데포우(Defoe)의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만큼의 양이 될 것이다. 그는 『계원필경』(桂苑筆耕)이라는 다섯 권짜리 책도 썼는데, 이것은 이야기들과 시, 그리고 수필류의 모음집이었다. 이 책에 수록된 이야기들 중 상당수는 적어도 단편소설(Nouvellette)이라 부를 만한 분량을 갖춘 것들이다. 거의 같은 시기에, 신라의 또 다른 문장가인 김압은 『하도

12) 아손 그랩스트(2005), 김상열 역, 『스웨덴기자 아손, 100년 전 한국을 걷다』, 책과함께, 159~160쪽.

13) 두 사람의 지적이 상통하는 것은 비슷한 경험과 견문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랩스트가 헐버트의 글을 읽고 참고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기』(*Ha-do Keni*)라는 제목의 일본 모험담을 썼다. 이것은 ‘소설(novel)로 분류될 만한 분량의 한 권짜리 이야기이다.¹⁴⁾

고소설사에 대해 시대별로 개관해 나가는 첫 문단에 해당한다. 7세기의 최치원부터 문학다운 작품이 나타났다고 보았다. 그리고 최치원이 「곤륜산기」(崑崙山記)라는 소설을 지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학계에 「곤륜산기」라는 작품이 소개된 바 없거니와, 원제는 ‘adventure among the Kuen-lun Mountains’로서 ‘곤륜산에서의 모험’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작품의 제목과 그 내용이 곤륜산을 배경으로 한 모험담이자 명산을 돌아다니는 동안의 일을 적은 환상적 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중국의 『서유기』에 해당한다. 즉, 험버트가 최치원을 최초의 소설가로 든 이유는 그를 『서유기』의 작가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험버트는 19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새롭게 등장한 단편소설(novelle)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도 『계원필경』에 수록된 짧은 서사 글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대한제국멸망사』 수록 ‘fiction’에서는 최치원 저작과 관련해 『계원필경』에 관한 언급은 빠지고, 테포우의 『로빈슨 크로소』 대신 초서(Chaucer)의 『켄터베리 이야기』를 예로 들며 최치원을

14) The literary history of Korea cannot be said to have opened until the days of Ch'oe Ch'i-wŭn in the seventh century A.D., the brightest light of early Korean literature. He is one of the few Koreans whose literacy worth has been recognized widely beyond the confines of the peninsula. But even then at the very dawn of letters we find that he wrote and published a complete novel under the name of “*Kon-yun-san Keni*”. This is the fanciful record of the adventures of a Korean among the Keun-lun mountains on the borders of Thibet. It forms a complete volume by itself and if translated into English would make a book the size of Defoe's *Robinson Crusoe*. The same man wrote a work in five volumes, entitled *Kye-wŭn P'il-gyŭng* which is a collection of stories, poems and miscellaneous writings. Many of stories are of a length the merit at least the name of novelette. At about the same time Kim Am another of the Silla literati wrote a story of adventure in Japan, which he called *Ha-do Keni*-This is a one-volume story and of a length to warrant its classification as a novel.

영국의 초서에 비견되는 작가로 서술해 놓았다. 그것은 「곤륜산기」, 아니 『서유기』가 『켄터베리 이야기』와 주제 면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다.¹⁵⁾

또한 헐버트는 『하도기』(*Ha-do Keui*)라는 일본 모험담을 남겼다는 김암(金巖)¹⁶⁾을 언급하고 있다. 김암은 779년(혜공왕 15년)에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그의 뛰어난 재주를 알아 본 일본 왕 고닌(光仁)이 그를 억류했다가 나중에 풀어 돌려보낸 일이 있었다. 김암의 행적과 일본 사신으로 다녀온 일들에 관해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 조에 기록되어 있는데¹⁷⁾ 헐버트가 이를 소설로 파악한 것이라 판단된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소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품의 분량을 거듭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암의 『하도기』를 “소설로 분류될 만한 분량의 한 권짜리 이야기(one-volume story and of a length to warrant its classification as a novel)”라고 하거나, 『곤륜산기』를 “그 자체로 한 편의 완전한 분량을 갖추고 있(it forms a complete volume by itself)”고 “데포우의 『로빈슨 크루소』만큼의 양(a book the size of Defoe’s *Robinson Crusoe*)”이 되며, 『계원필경』 수록 이야기들이 “단편소설이라 부를 만한 분량을 갖추었다”(Many of stories are of a length merit at least the name of novelle)고 한 것 등이 바로 그러하다. 이는 당시에 ‘소설’로 인식될 만한 분량이 따로 있으며, 많은 이야기(설화)들이 단편소설(novelle)의 분량을 갖추고 있다고 여겼던 것을 의미한다. 설화와 단편 소설의 차이점을 글

15) 『서유기』는 불전을 구하러 인도에 가는 현장법사와 그의 제자 손오공이 벌이는 모험담과 신이담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초서의 『켄터베리 이야기』는 켄터베리 대성당으로 순례길을 나선 순례자들이 들려준 단편 서사를 모아 놓았다. 영국문학사에서 최초로 라틴어가 아닌 영어로 쓴 작품으로 평가받는다(앤드루 샌더즈(2003), 정규환 역, 『옥스포드 영문학사』, 도서출판 동인, 86~97쪽).

16) 김암은 김유신(金庾信)의 증손으로 병법가, 천문가이자 무관이었으며 당나라에 유학하여 음양학(陰陽學)을 연구하고 『둔갑입성법』(遁甲立成法)이라는 책을 저술한 술법가로 유명하다. 점복술과 은형술(隱形術)에 뛰어났다고 한다.

17) 김부식, 「김유신 하」(부附 김암金巖), 『삼국사기』 권43. ; 김부식(1984), 이병도 역주,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639쪽.

의 성격과 내용 요소가 아닌 분량에서 찾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설화와 소설을 엄밀히 구분 짓지 못하는 가운데, 분량이 장르적 소설을 규정짓는 최소한의 서사적 변별 자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치원이 『계원필경』에 시와 이야기를 많이 남겼다고 했는데, 이때의 ‘이야기’는 ‘story’를 번역한 것으로, 전기(傳奇) 등 당대의 짧은 서사 작품을 아우르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④ 고려시기로 내려오면, 유명한 문장가였던 홍관(Hong Kwan)이 기자(Keui-ja) 시기의 이야기들을 묶어서 쓴 『기자전』(Keui-ja jun)이 있었다. 이야기들의 단편적인 성격 때문에 이야기들을 소설로 분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책은 분명한 허구 이야기[fiction]이다. 고려 최고의 문장가이자 『삼국사』를 쓴 김부식(金富軾)은 『북장성』(北長城), 또는 『긴 북벽(北壁)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 완결된 한 권의 소설을 썼다. 이 책은 한국이 중국의 만리장성에 대응할 만한 벽, 즉 황해와 동해를 이어서 한국의 북쪽을 가로지르는 벽을 쌓은 점을 다룸으로써 역사 소설이라 부를 수 있다.¹⁸⁾

고려시대의 소설 작가로 ‘홍관’(洪灌, ?~1126)¹⁹⁾과 ‘김부식’을 거명했는데, 그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북장성』(北長城)은 ‘The Story of Long North Wall’을 번역한 것으로, 만리장성을 본떠 고려시대에

18) Coming down to the days of Koryū we find that the well known writer Hong Kwan wrote the Keui-ja Jūn, a collection of stories dealing with the times of Keui-ja. This, of course, was pure fiction though the fragmentary character of the stories would bar them from the list of novels proper. Kim Pu-sik, the greatest, perhaps, of the Koryū writer, to whom we owe the invaluable Sam-guk-sa wrote also a complete novel in one volume entitled Puk-chang-sung or “the story of the Long North Wall”. This may properly be called an historical novel, for Korea once boasted a counterpart to the Great Wall of China and it extended from the Yellow Sea to the East Sea across the whole of northern Korea.

19) 고려 중기의 문신으로 『편년통재속편』(編年通載續編) 등을 편찬한 바 있다.

축조한 천리장성을 소재로 한 작품이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⑤ 1440년경 가산(Ka-san)이라는 유명한 승려는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을 썼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종(Hä-jong)이라는 승려가 『임경업전』을 썼다. 조금 더 근대로 넘어와서 많은 소설 중 몇 개를 골라보면, 1760년경에 이문종(Yi Mun-jong)이 쓴, 풍자적 제목을 갖고 있는 소설을 꼽을 수 있다. 『개구리전』(*The frogs*), 더 정확하게는 『두꺼비전』(*The Toad*)을 언급할 수 있다. 다시 1800년경에는 김춘택(Kim Chun-täk)이 네 권의 소설을 썼는데, 각각 『창선감의록』, 『구운몽』, 『금산사몽회록』, 『사씨남정기』로, 뜻을 풀이해보면 ‘미덕과 정의에 관한 찬양’, ‘아홉 명의 꿈’, ‘금산사에서서의 꿈’, ‘남쪽 전쟁에서의 사씨족’이다. 약 십년 후에는 이우문(Yi U-mun)이 쓴 『이해룡전』(Yi Hä-ryong)이 나왔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열거함으로써 단지 윤곽을 간략히 훑어보았다. 한국 소설 목록은 이 잡지의 많은 면을 차지할 것이다. “*The golden jewel*”, “*The story of a clever woman*”, “*The adventure of Sir Rabbii*”과 같은 이름으로 보면, 진정한 소설(Romance)들이 많이 있다.²⁰⁾

조선 시대의 소설 작품과 작가를 소개한 부분으로, 다양한 작품이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예를 들어 강조했다. 그런데 1440년경에 ‘가산’이

20) About the year 1440 a celebrated monk named Ka-san wrote a novel called “The adventures of Hong Kil-dong”, Not long after that the monk Hä-Jong wrote another entitled “The adventures of Im Kyong-op”. Coming down to more modern times, and selecting only a few out of many, we might mention the novel by Yi Mun-Jong written in about 1760 and bearing the Aristophanean title “The Frogs”, or rather to be strictly correct “The Toad”. Then again in about 1800, Kim Chun-täk wrote four novels entitled respectively Ch’ang-sonKam-eui Rok, Ku-on-mong, Keum-sanSa Mong-hoi-rok, Sa-si Nam-Jüng Keui, or by interpretation “The Praise of Virtue and Righteousness”, “Nine Men’s Dreams”, “A dream at Keum-san Monastery”, “The Sa clan in the southern wars”. Ten years later we have novel from the pen of Yi U-mun entitled “The Adventures of Yi Hä-ryong”, In this enumeration we have but skimmed the surface. A list of Korean novels would fill many numbers of this magazine. That they are genuine romances maybe seen by the names “The Golden Jewel”, “The story of a Clever Woman”, “The adventures of Sir Rabbit” and the like.

라는 유명한 승려가 『홍길동전』을 지었다고 한 것은 작가의 착각으로 보인다.²¹⁾ 그러나 1440년경의 고승이라면 허균보다 김시습이 먼저 떠오른다. 김시습 역시 승려가 되었을 뿐더러 소설을 지었다는 점에서 교산의 『홍길동전』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로 본다면 저자가 교산 허균의 『홍길동전』을 김시습의 생존 시기와 혼동해 둘을 섞어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헐버트는 『임경업전』의 저자로 ‘해종’이란 중을 지목했다. 또한 『두껍전』을 1760년경에 이문중(Yi, Mun-Jong)이, 『창선감의록』 등을 김춘택이 지었으며, 『이해룡전』은 이우문(Yi, U-Mun) 작이라 밝히는 등 작가를 구체적으로 밝혀놓았다. 이 중 『임경업전』의 작가로 거론한 ‘해종’(Hǎ-Jong)은 역사적으로 ‘해종’(海宗)이란 법명을 가진 화승(畫僧)이 실재한 것으로 확인되나²²⁾ 그가 『임경업전』의 작자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는 아직 없다.²³⁾ 다른 작품들의 작자 고증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창선감의록』과 『금산사몽유록』, 『구운몽』과 『사씨남정기』의 작가를 기존에 잘 알려진 조성기와 김만중이 아닌, 김만중의 손자 ‘김춘택’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아직 김춘택 작가설이 완전 부정되고 있지 못할뿐더러, 헐버트가 이렇게 기술한 내용은 당시에 누군가가 헐버트에게 알려주었거나 헐버트가 입수한 자료를 참고한 것이라고 할 때, 이에 관한 근거 자료가 추가로 확보될 때까지 헐버트의 주장을 부정적으

21) H.B. 헐버트(2006), 신복룡 역주, 『대한제국멸망사』, 집문당, 370쪽, 각주 6번. 여기서 역자는 가산이 허균의 호인 ‘교산’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소개하면서 헐버트가 허균이 불교에 심취했던 것을 알고 ‘고승’이라 했을 것으로 추정하 바 있다.

22) 해종(海宗)은 1673년에 「장곡사미륵불괘불탱」(長谷寺彌勒佛掛佛幀)을 그린 5명의 화가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국보 제 300호로 지정된 충남 청양군 장곡리 소재 장곡사 소장 「장곡사미륵불괘불탱」은 1673년(현종 14)에 철학(哲學), 천승(天勝), 신밀(信密), 일호(一湖), 해종 이렇게 5명이 그린 것이다(「장곡사미륵불괘불탱」, 「회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3) 다만 『임경업전』의 주인공인 임경업(林慶業, 1594~1646)의 생몰 시기와 17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해종의 활동 시기와 일부 겹친다는 점에서 일탈의 관련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로 평가하고 말아서 안 될 것이다.

[6] 많은 소설들은 한국으로 배경으로 하지만, 한국과 먼 곳 또한 그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그 중 주로 중국이 한국 이야기(tale)의 주요한 단골 배경이 되었다. 한국 작가들은 서구에서도 흔히 하는 것처럼 관습에 따른 것이다. Bulwer Lytton, Kingsley, Scott, 그리고 수많은 다른 이들이 한 것처럼 말이다. 게다가 한문소설 외에도 한국에는 순국문으로 된 소설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명목상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 백성 중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식자층에 의해 폄시 당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소설들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서 대화를 나누는 식자층은 거의 없었다. 이 소설들은 어느 지역에서나 판매되었으며, 그 중 서울에서만 최소 7개의 대출 도서관(=세책점, 역자 주)이 있었다. 대출 도서관에는 한문본과 국문본이 수백 종 있었다. 이 소설들 대부분은 작자미상이며, 그 내용은 그 작가들의 도덕성을 그다지 좋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소설들의 내용이 아무리 저속하더라도, 그것이 그 당시 한국 도덕성의 진정한 거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⁴⁾

한편, 한글소설의 위상과 유통에 관련해서는 한글소설을 폄하하는 이들이 지식인 중에 일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주로 한문소설과 한글소

24) "While many of the Korean novels place the scene of the story in Korea, others go far afield, China being a favourite setting for Korean tales. In this the Korean writers have but followed a custom common enough in western lands, as the works of Bulwer Lytton, Kingsley, Scott and a host of others bear witness. Besides novels written in Chinese, Korea is filled with fiction written only in the native character. Nominally these tales are despised by the literary class, which forms a small fraction of the people, but in reality there are very few even of these literary people who are not thoroughly conversant with the contents of these novels. They are on sale everywhere and in Seoul alone there are at least seven circulating libraries where novels both in Chinese and the native character may be found by the hundreds. Many of these novels are anonymous, their character being such that they would not bring credit upon the morals of the writer. And yet however debasing they may be they are a true mirror of the morals of Korea today."

설이 서점과 세책점에서 대량 거래된다고 했다. 여기서 ‘대출도서관’(circulating library)라 한 것은 ‘세책점’(貫冊店)을 의미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소설 판매가 이루어졌고, 서울의 세책점에는 수백 권의 국문·한문 소설을 쌓아 놓고 성업 중이었음을 언급함으로써 한국에는 소설이 없다는 계열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소설이 어느 곳에서나 판매되었다는 것은 방각본 소설의 유통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리고 작자 미상의 작품들이 많았다는 것은 작품의 주종이 한글소설이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헐버트는 특별히 당시에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소설들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비록 소설들이 저속할지라도 이것들이 거울처럼 당시 풍속을 잘 반영하고 있고, 그것이 당시 한국인의 도덕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척도가 된다고 본 것이다. 특히 통속소설이라는 이유로 비판받던 소설 작품을 통해 당시 조선 사회 구성원(독자)의 도덕관념과 기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고소설 향유의 확대 측면과도 직간접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주목한 점에서 헐버트의 이러한 관점은 탁견이며, 이를 신중하게 읽어낼 필요가 있다.

[7] 한국, 그리고 모든 아시아에서 많이 발견되는 관습들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랑 이야기”를 만든 이가 누구인지 굳이 물으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하지만 어디나 마찬가지로, 성(sex)에 관해서는 남녀 간의 관계가 흥미를 끈다. 우리는 수많은 한국 소설에 나오는 외설적인 인물들의 특징을 알아냈다. 그리스 시대의 아스파사(Aspasia)란 여인의 이름과 그리스 연극에 등장하는 창녀(hetairai)들이 그리스 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이유로 기생이나 무녀(舞女)들이 한국 소설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⁵⁾

25) The customs which prevail in Korea, as everywhere else in Asia, make it out of the question for anyone to produce a “love story” in our sense of the term, but as the relations of the sexes here as everywhere are of absorbing interest we find some explanation of the salacious character of many Korean novels. And just as the names of Aspasia and

헬버트는 남녀의 성 관계를 다룬 작품이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았음을 지적하는 한편, 작품 속 기생의 등장 여부가 흥미를 높이는 원천임을 강조했다. 작품 속 기생의 의미와 역할을 그리스 작품에 등장하는 창녀와 비교해 설명함으로써 서구 세계의 사랑 이야기와 유사한 소설이 한국에도 존재했음을 부각시키고자 했다.²⁶⁾

⑧ 비록 간략하지만, 한국 소설에 관해 많이 다뤘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소설의 주제들에 관해서 살살이 훑었다고는 할 수 없다. 여기에는 오랜 관습으로 강력히 작동하고 있는, 책을 만들기 이전에 선행했던 것으로, 입을 통해 이야기들을 전하던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부유한 양반(a gentleman of means)이 소설 한 권을 “읽고” 싶으면, 서점에 가서 책을 사러 가기보다는 광대를 부르거나 북을 치는 조수와 함께 다니는 광대, 즉 전문 이야기꾼을 불러 하루 종일 혹은 꼬박 이틀 걸리는 이야기를 낭송하게 한다. 이것이 소설(fiction)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한 연행 방식과 소설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가? 사실 이러한 연행 방법은 우리의 소설보다 예술적 창조에 있어서 훨씬 뛰어나다. 이야기꾼의 훈련된 행위와 억양이야말로 단순히 소설을 읽을 때에는 맞볼 수 없는 연극적 요소를 가미시킨다. 이러한 형태의 낭송이 한국 연극의 위치를 대신하고 있다.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본과 중국이 오랫동안 극을 발전시켜 왔던 것과 달리, 한국은 극에 관해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²⁷⁾

other *hetairai* of Greece play such an important part in a certain class of Greek literature, just so, and for the same reason, the *ki-sang* or dancing-girl trips through the pages of Korean Fiction.

26) 아스파사(Aspasia)는 아테네의 장군이었던 페리클레스(Pericles)의 정부(情婦)이자 아테네의 창녀로, 소위 ‘그리스의 황진이’에 해당하는 여인이다. 여기서 ‘창녀’는 원문의 ‘*hetairai*’를 번역한 것으로 ‘*hetairai*’는 기원전 그리스에서 활동하던 고급 창녀를 뜻한다. 이와 반대로 하급 창녀는 ‘포르네’(porne)라고 했는데, 오늘날 ‘포르노’의 기원이 여기서 출발했다.

27) So much, in brief, as to written Korean Fiction ; but we have by no means exhausted the subject of fiction in Korea. There remains here in full force that ancient custom,

고소설의 향유방식과 향유 양상에 관해 소개해 놓은 대목이다. 헐버트의 중요한 발언은 광대의 이야기와 소설이 차이가 있는가를 묻는 데 있다 하겠다. 광대의 이야기와 소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두 갈래의 서사적 성격이 유사하다고 여겼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소설보다 광대의 이야기가 연행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더 극적인 실감을 제공해 주므로 더 우수하다고 했다. 텍스트 작품보다 연행 작품이 더 강력한 감흥과 실감을 자아낸다고 본 것이다. 이는 구전물과 기록물 중, 구전물이 실생활에서 독자에게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에 더 주목한 결과라 하겠다. 즉, 헐버트는 소설 낭독의 방식이 서양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예술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헐버트는 당시에 소설을 읽는 것과 연기하는 것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 미감에 주목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밖에 헐버트는 국내에서 판소리가 연극을 대신한 것을 특이한 현상으로 보았다. 중국, 일본, 그리고 서양의 경우 각국 문학사에서 연극이 널리 성행한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이렇다 할 극문학 작품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우리 문학사에서 중·상층의 문학담당층이 문자 중심의 유교 문학을 중시하고 몸으로 하는 연행 예술을 천시하던 의식과 맞물려 실제로 공연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고, 연극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노력 또한 나타나지 않았던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which antedates the making of books, of handing down stories by word of mouth. If a gentleman of means wants to “read” a novel he does not send out to the book-stall and buy one but he sends for a kwang-dǎ, or professional story-teller who comes with his attendant and drum and recites a story, often consuming a whole day and sometimes two days in the recital. Is this not fiction? Is there any radical difference between this and the novel? In truth, it far excels our novel as an artistic production for the trained action and intonation of the reciter adds an histrionic element that is entirely lacking when one merely reads a novel. This form of recital takes the place of the drama in Korea. ; for, strange as it may seem, while both Japan and China have cultivated the histrionic art for ages, Koreans have never attempted it.

⑨ 소설(fiction)은 한국에서 언제나 다른 문학 작품들보다 낮게 평가받아 왔다. 그 대신 시(한시)와 역사가 문학의 중요한 두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중국에 의해 크게 영향 받은 모든 나라에서는 이러한 것이 모두 사실이다. 한자의 사용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㉔ 민족어와 문어가 달랐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대화를 기록할 수 없었다. 이 자체가 예술로서의 소설이 적절한 발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장애물이 되었다. 왜냐하면 대화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이야기의 활력과 생기를 크게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방언으로 된 이야기와 인물 묘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이다. 게다가, ㉕ 역사와 시의 형식이 중국의 이상적 문학 형식을 따르다 보니 사람들은 소설도 마찬가지로 중국적 형식에 맞추도록 만들어 왔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진정한 소설(Romance)이 『조상근전』(*The biography of Cho Sang-geun*) 같은 제목으로 처리된 채 가려져 있거나, 혹은 똑같은 것처럼 길들여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들의 대화를 완벽히 기록하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자(한자)가 가진 힘의 제한이 바로 전문 이야기꾼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똑같은 이유로 한국의 국문문학이 역사와 시에 비해 열등하고 두 번째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러한 점과 또 다른 수많은 점을 볼 때, 한국이 중국의 이상에 종속된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잘 보여 준다.²⁸⁾

28) Fiction in Korea has always taken a lower place than other literary productions, poetry and history being considered the two great branches of literature. This is true of all countries whose literatures have been largely influenced by China. The use of the Chinese character has always made it impossible to write as people speak. The vernacular and the written speech have always been widely different, and it has always been impossible to write a conversation as it is spoken. This in itself is a serious obstacle to the proper development of fiction as an art, for when the possibility of accurately transcribing a conversation is taken away, the life and vigour of a story are largely lost. Dialect stories and character sketches are practically barred. And besides this, subserviency of Chinese literary ideals to the historical and poetical forms has made these people cast their fiction also in these forms ; and so we often find that a genuine romance is hidden under such a title as “The biography of Cho Sang-geun”, or some other equally tame. It is this limitation of the power of written language to transcribe accurately human speech that has resulted in the survival of the professional story-teller, and it is the same thing that

역사서와 한시에 대비되는 국문 고전소설의 위상에 관해 다룬 부분이다. 시와 역사서가 전통적으로 사대부(지식인)들이 숭상하던 한문학의 일부로 인식되어 온 것과 달리, 소설이 열등한 문학으로 취급받아 왔음을 간파하고 있다. 여기서 ‘fiction’은 구어체의 국문소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인용문의 원문에 의거하면, “This in itself is a serious obstacle to the proper development of fiction as an art, for when the possibility of accurately transcribing a conversation is taken away”(㉠)의 문제와 “subserviency of Chinese literary ideals to the historical and poetical forms has made these people cast their fiction also in these forms”(㉡)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예가 『조상근전』이다. 내용과 성격은 한국의 진정한 로맨스(Romance)에 해당하나, 중국 문학의 형식을 따르느라 한문 글의 양식을 딴 ‘~전’ 등으로 명명하는 습관 같은 것이야말로 중국적 이상에 종속된 부정적 영향의 예라 여겨졌 것이다. 그런데 현전 작품 중 『조상근전』이란 소설은 없다. 다만 발음의 유사성과 표기의 오류 가능성을 고려하고 국문소설 중 낭독하기 쉬운 문체로 이루어진 작품임을 생각할 때²⁹⁾ 현전 작품 중 『조생원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다.³⁰⁾

그 밖에 헐버트는 설화문학과 기록문학의 관계를 문화 발달 정도와 연관 지어 생각했다. 그는 설화 문학이 한자로 채록되고 기록됨으로써 그

has made Korean written fiction inferior and secondary to history and poetry. In this, as in so many other things, Korea shows the evil effects of her subserviency to Chinese ideals.

29) 『조생원전』은 계모형 한글소설로서, “~거등보소, ~불작시면”처럼 낭독의 방식으로 향유되기에 용이한 문체가 자주 보인다.

30) 참고로 스킬렌드(Skillrend) 교수는 『조생원전』을 ‘Cho saengwon’으로 적었는데, ‘Sanggeun’과 ‘Saenwon’은 ‘w’를 ‘g’로 바꾼다면 ‘sanggon’이 되어 ‘sanggeun’과 매우 유사하다(W.E.Skillend, *Kodae Sosol : A Survey of Korean Traditional Style Popular Novels*, London : Unwin Brothers Limited, 1968, p.203). 또한 ‘sanggeun’을 sang-geun’으로 나누지 않고 ‘sangg-eun’으로 끊어 읽는다면 ‘상근’이 아닌 ‘상웬’이 되어 ‘생원’과 발음이 비슷해진다.

생명력을 잃게 되었다고 보면서도 문자사용으로 인한 제약이 컸기 때문에 연행성과 극적 감흥, 그리고 흥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직업적 전문가가 대거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런 시각은 게일이 한문학을 중심에 두고 우리 고전문학을 평가한 것과 일정한 차이가 보인다. 헐버트는 구비문학과 국문소설의 연행성, 구술성에 주목하고 ‘직업적인 이야기꾼’(professional storyteller)에 의한 고소설 향유 양상과 구술 창작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질문이 하나 있다. 다른 문학 장르와 비교해 소설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읽혔던 것일까? 역사와 시만을 읽을거리로 취급했던 소수의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소위 교육받은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한자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밖에 없어서 유창하게 읽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점들이 그들이 한자와 한글이 같이 쓰인 일간지를 읽도록 만들었고, 또한 한글 소설을 읽게 했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하지만 한글이 훨씬 친숙한 중하층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형편이 되면 한글로 된 일간지를 읽거나 한글로 된 보통의 이야기책을 읽었다. 이러한 한글소설들의 주요 독자는 여성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는 실제로 남자들이 언문소설을 멸시하는 것처럼 행동하였기 때문인데, 사실은 글(한자)을 읽고 쓸 줄 안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월하게 읽을 수 있었던 것은 한글소설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대다수 중산층 사람들은 항상 한글소설을 읽었다. 단연코 오늘날 한국에서 읽히는 주요한 장르는 어떤 형태로든 소설이다.³¹⁾

31) But the question may be asked. To what extent is fiction read in Korea as compared with other literary productions? There is a certain small number of the people who probably confine their reading to history and poetry, but even among the so-called educated classes the large majority have such a rudimentary knowledge of the Chinese character that they cannot read with any degree of fluency. There is no doubt that these confine their reading to the mixed script of the daily newspaper or the novels written in the native character. But the great mass of the people, middle and lower classes, among whom a knowledge of the native character is extremely common, read the daily papers

앞 문단에 이어 헐버트는 책 형태의 소설보다 낭독되던 소설(이야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민족어가 소설의 언어로 사용되는데 장애가 없다고 보고, 소설이 민족어(한글)로 쓰인 작품이 주가 되면서 여성과 다수의 식자층들이 한글소설의 주 독자였노라고 했다. 한글소설이 우리 고소설의 본령임을 분명히 밝혀 놓은 것이다. 여기서 헐버트가 주장한 논의의 핵심은, 오랫동안 조선에서 한문학이 강조되었지만, 정작 한문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조차도 한문 실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소설을 읽을 수밖에 없었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글 소설이 광범위하게 유통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보더라도 현존 한시나 역사소설만으로 조선의 독서문화를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일임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20세기 초 헐버트의 고소설관은 오늘날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당 부분 실상에 부합한다. 따라서 헐버트가 한시보다 구비설화나 판소리, 그리고 한글 소설을 가지고 한국문학의 특질을 논하고, 책이 아닌 연행 현장에 나가 채록하고 소설의 향유 방식에 깊은 관심과 성과를 보여준 것은 한국학 연구의 초석을 놓은 성과이자 진전이 아닐 수 없다.

which are written in the native character when they can afford to buy them or else read the common story-book in the same character. It is commonly said that women are the greatest readers of these native books. This is said because the men affect to despise the native character, but the truth is that a vast majority even of the supposedly literate can read nothing else with any degree of fluency, and so they and the middle classes are all constant readers of the stories in the native character. By far the greater part of the stories in the native character. By far the greater part of what is read today in Korea is fiction in one form or another.

3. 외국인 기록물을 통해 본 고소설 향유의 실상

앞서 살펴본 헐버트의 평가와 주장이 제일의 그것과 비교해 모두 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 그렇다면 과연 헐버트의 고소설 관련 글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글을 통해 재확인하거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 이에 관해 몇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헐버트는 그의 글에서 고소설과 고전문학의 본령을 기록문학보다 구비적 특성에서 찾으려 했다. 그러나 제일은 한문학과 기록문학이 한국문학을 이해하는 요체라 보았다. 그러했기에 제일은 『동국이상국집』 등 한문학 전적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매진했다. 그러나 헐버트는 제일과 달리 문자를 모르던 일반 민중과 그들의 문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헐버트는 문자로 기록된 고소설과 입으로 전하던 판소리를 동격에 놓고,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의 상관성에 관해 주목했다. 책 형태의 고소설 작품보다 구연되던 이야기 작품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더 큰 영향과 감흥을 준다고 보고 기록문학에 버금가거나 능가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헐버트가 한자(한문) 사용을 부정적으로 본 것도 이와 상통한다. 헐버트는 한자야말로 유효성을 상실한 문자라 보고, “매우 귀찮고도 비과학적인 문자”이므로 “보통 교육의 과정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³²⁾고까지 했다. 이는 한자가 사회적으로 권력과 통치의 수단이 되고 민중과의 소통과 연대를 불능케 한 주범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 문학 현상의 주종이 한자라는 문자사용에 좌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헐버트가 한자 사용과 한문학에 부정적이었던 이유는 문학의 효용과 독자층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문학이 인생의

32) H.B. 헐버트(1999), 신복룡 역주, 『대한제국멸망사』, 집문당, 365쪽.

실질적인 측면을 다루지 않고, 오히려 역사물에 가깝고 경구(警句)가 많으며 학술적인 성격이 강한 도덕적 글이 주를 이룬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돈이 많은 선비나 관리들 중 일부만 필사본 책을 얻어 볼 수 있을 뿐 대중들은 좀처럼 이용할 수 없었던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에 더더욱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헐버트가 한국에서 책 또는 독서물이 실질적이며 실생활에 부합된 지식을 담보하는 경우가 적다고 본 것도 한 문학 위주의 책 또는 독서물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헐버트의 눈에는 한 자야말로 “피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최면적인 힘”에 불과했던 것이다.³³⁾ 그 결과 헐버트는 오히려 설화 또는 구전 문학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낭송을 통한 소설 향유를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헐버트는 구비문학적 특징이 기록문학(한문학)에도 다수 반영되었고, 한문으로 기록된 설화문학 또한 적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따라서 이분법적 관점에서 한문학보다 국문문학을 우위에 놓고 한문학 중심의 문학관을 피력한 계일과 대립을 한 것은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하겠다.³⁴⁾

둘째, 헐버트의 이런 시각은 현대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설 향유 형태와 독자 반응을 고려할 때, 당시에는 책 형태(문자 중심)의 소설보다 구전되던 이야기로서의 소설이 실생활에서 더 큰 영향을 미쳤고, 거기에 가치를 높이 두고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33) 이상현(2008), 『제임스 계일(James Scarth Gale)의 한국학 연구와 고전서사의 번역』,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80쪽.

34) 유럽의 경우, 중세까지만 해도 라틴어를 사용한 귀족문학이 득세하다가 르네상스 이후로 구어(민족어)를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민족어문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의 경우, 한문을 이용한 한문학이 주를 이루었으나, 한글을 이용한 문학 작품이 나타나고, 독자층이 확대되고, 구어를 통한 구비 전승의 문화 역시 활발히 전개되었다. 한국과 유럽의 문학사 전개의 흐름이 대동소이하게 나타난 사실에 관해서는 조동일(1996), 『세계문학사의 허실』, 지식산업사; 조동일(1999), 『문명권의 동질성과 이질성』, 지식산업사 등을 참고할 것.

다. 오늘날 인쇄된 책 형태의 소설 작품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현대 독자들은 100여 년 전과 그 이전 시기에 성행했던 소설 향유 방식과 소설의 존재 형태가 오늘날과 달랐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앞선 ㉘ 문단의 내용을 보더라도 구전 서사와 텍스트 소설의 관계를 단순히 선후의 영향 관계로만 파악하고 말 것은 아니다. 양자가 공존하는 가운데 상호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 나간 것이 실재적 문학현상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판소리가 텍스트 소설 발달에 영향을 미쳐 판소리계 소설이 나타났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그것은 도식적 이해에 불과하며 실상과도 다를 수 있다. 국문 소설의 경우, ㉘의 인용문에서처럼 듣는 독자가 읽는 독자보다 더 많았고 낭독을 통한 집단 향유가 생활 속에서 빈번히 이루어졌다. 또한 국문소설은 지속적으로 구전서사와 기록서사가 상호 경쟁하는 가운데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모해 나갔다. 따라서 판소리계 소설, 국문영웅소설 등의 향유 방식이 구연(口演)과 낭독에 의한 부분이 적지 않았던 만큼, 헐버트가 살았던 19세기말~20세기 초 국내의 국문소설 향유와 서사 형성 과정에 있어 소설이 오히려 판소리 사설 형성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열어 둘 필요가 있다.³⁵⁾

그리고 ㉘ 문단에서 책값이 비싸 책을 살 수 없을 때 판소리 광대를

35) 고소설과 판소리의 영향 관계와 관련해 오히려 세책 고소설이 판소리 사설의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도 그 실상을 적극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예컨대, 이윤석은 “판소리 『춘향가』의 가사가 완판 84장본 『열녀춘향수절가』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은, 많은 판소리 창자들이 완판84장본을 대본으로 노래를 배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판소리 『춘향가』의 가사를 옮겨놓은 것이 소설 『춘향전』이 아니라, 소설 『춘향전』을 노래로 부른 것이 판소리 『춘향가』라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완판 『춘향전』의 원천은 무엇인가? (중략) 서울의 여러 가지 『춘향전』은 세책 『춘향전』에서 분화된 것이므로 『춘향전』 이본의 맨 앞에 있는 것은 세책 『춘향전』이다.”라고 하며 ‘근원설화→판소리→판소리계소설’의 도식이 잘못되었음(이윤석(2011), 『향목동 세책 춘향전 연구』, 경인문화사, 머리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한 예이다.

통해 판소리를 듣던 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 진술은 양자가 독자들에게 등가적 독서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판소리 광대가 노래와 사설을 뒤섞여 가며 연극적 요소를 강화시켜 들려주던 소설이 단순히 눈으로 읽는 소설보다 훨씬 더 인기가 높았던 이유는 여전히 구전, 또는 낭독에 의한 민족 구어의 사용과 일상적 향유가 빈번했기 때문이라 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 온 것과 달리, 전기수가 들려주던 소설이란, 실은 책 형태의 것이 아니라 무형의 이야기를 전기수가 외워서 들려주던 형태의 것이었을 가능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기수(傳奇搜)는 동문(東門)밖에 살고 있다. 언과패설(言課稗說)을 입으로 외는데, 그것은 『숙향전』(淑香傳)·『소대성전』(蘇大成傳)·『심청전』(沈淸傳)·『설인귀전』(薛仁貴傳)등이다. (중략) 그가 워낙 읽는 솜씨가 훌륭하기 때문에, 청중들이 많이 모여들어 주위를 빙 둘러싼다. 그는 읽다가 가장 긴요하게 꼭 들어야 할 대목에 이르면 문득 소리를 멈춘다. 그러면 청중들이 그 다음 대목이 궁금해 서로 다투어 돈을 던진다. 이것을 일컬어 요전법(邀錢法)이라 한다.³⁶⁾

연구자들은 위 글과 관련해 조수삼이 증언하고 있는 전기수가 소설 ‘책’을 읽어주고 있다고 해석했고, 그리하여 번역도 책을 뜻하는 기호를 사용해 『숙향전』, 『소대성전』으로 적고 넘어간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수거동문외(叟居東門外), 구송언과패설(口誦諺課稗說), 여숙향소대성심청설인귀등전기야(如淑香蘇大成沈淸薛仁貴等傳奇也)”라 하여 ‘구송’(口誦)했다고 했지, 책을 읽었다고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전기수는 책이 아니라 속향 이야기, 소대성 이야기, 심청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구연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물론 책을 펼쳐 놓고 구성지게

36) 叟居東門外，口誦諺課稗說，如淑香蘇大成沈淸薛仁貴等傳奇也。…而善讀故傍觀
 匝圍，讀至最喫緊甚可聽之句節，忽默而無聲。人欲聽其下回，爭以錢投之，曰此乃
 邀錢法云。(『추재집』(秋齋集) 권7)

입어 내려갈 수도 있다.³⁷⁾ 그러나 요전법(邀錢法)이 가능하려면 목소리의 고저장단, 강약 등을 고려하는 한편, 얼굴 표정과 몸짓까지 섞어가며 입체적으로 구연하는 것이 손으로 책을 들고서 읽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요전법과 관련해서는 ‘읽기’를 잘했으며(善讀) ‘읽다가’ 최고 절정의 순간에 이르러 가히 경청할 만한 구절이 나오면(讀至最喫緊甚可聽之句節) 홀연 침묵하고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다(忽默而無聲)고 했는데, 이는 정황상 실제로 ‘눈으로 읽었다’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어 읽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타당하다. 그렇다면 전기수가 책을 보면서 소리 내어 읽는 것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외워서 구송하는 방식이 부자연스럽거나 특별한 경우였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요컨대, 당시 다수가 소설을 구전되던 이야기로 인식하고 실제 향유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전기수의 소설 낭독 역시 구전적 측면이 강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기수(낭독자)를 통한 소설 독서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상 속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소설 독서의 주된 방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정작 고소설 독서가 귀로 듣는 독서에서 눈으로 읽는 독서로 일반화되게 된 것은 1920~30년대를 거치면서 신식교육을 받는 학습자들이 늘어나고 인쇄 기록문학 형태로 정착하게 된 후의 일이었다.³⁸⁾

셋째, 그동안 전기수의 요전법 영업에 관한 자료는 조수삼의 글이 유일했다. 그 글을 통해 당시 유행하던 소설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고, 당시 전기수라는 전문 낭독자가 동대문에서 종로까지 자리를 바꿔가며 소

37) 이와 유사한 예를 『열하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지원은 요동성 밖 관우사당 안에서 소설을 읽어주던 전기수와 같은 존재를 발견하고, 까막눈이지만 이야기를 외운 까닭에 입에서 술술 흘러나오듯 낭송했다고 했다. 이때 책 읽어주는 사람이 『수호전』(水滸傳)을 펼쳐 놓고 실제 낭송한 것은 『서상기』(西廂記)였다는 일화는 유명하다(박지원(2009), 김혈조 역, 『관제묘기』, 『열하일기 1』, 돌베개, 147쪽).

38) 이민희(2011), 「1920~1930년대 고소설 향유 양상과 비평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28집,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25~126쪽.

설을 들려줄 때 요전(邀錢)의 방법을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글만으로는 그러한 소설 독서 문화와 상업적 유통이 얼마나 일반적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³⁹⁾ 자료의 부족 때문이다. 여기서 헐버트가 소설과 구비전승 문화와의 관계를 강조한 것이나 아손 그랩스트의 글에서 전기수에 관해 기록해 놓은 것을 함께 고려할 때, 듣는 독서문화가 1904년에도 일상에서 빈번히 이루어졌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그랩스트는 전기수의 고소설 낭송 현장을 목격하고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다.⁴⁰⁾

어느 날 저녁 무렵 우리는 일본인 거주 지역을 걷다가 바로 근처의 길 모퉁이에 있는 소리꾼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지붕은 기둥 네 개에 의지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다닥다닥 이어붙인 것이었다. 삼면은 터져 있었고, 안에서는 조그마한 책상 앞에 소리꾼이 앉아 사이사이에 생강 차로 목을 축이면서 어떤 책을 읊고 있었다.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주위에는 많은 인원의 청중들이 모여 있었다. 소년들은 맨바닥에 주저앉아 커다란 눈을 하고서 듣고 있었고, 뒤에는 어른들이 담뱃대를 입에 물고 앉아 있었다. 소리꾼은 별의별 목소리를 다 훑내 내었다. 어떤 때는 높은 가락의 목소리를 내고, 어떤 때는 가장 낮은 목소리를 내었다. 목소리에 위엄이 서릴 때도 있고, 부드러운 피리 소리처럼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려줄

39) 물론 이 후로도 전기수와 아마추어 낭독자의 고소설 낭독 현장 및 고소설 향유 방식에 관한 글은 다수 전한다. 그러나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여전히 요전법을 사용해 전기수가 영업을 했다는 자료는 별반 없었다. 이런 점에서 그랩스트의 글은 1900년 전후 시기 전기수의 영업방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하겠다.

40) 아손 그랩스트는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일본에 왔던 신문기자였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 취재를 금하자 1904년 12월 말에 조선으로 밀항을 시도, 조선에서 수개월 머물고 다시 스웨덴으로 돌아가 1912년에 한국 체류 시 관찰했던 내용을 'I.Korea'라는 제목으로 간행했다. 그 책에서 아손은 100년 전 국내의 정세와 생활문화, 특별히 고소설 독서문화에 관해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자세히 적어놓았다. 현재 번역본이 나와 있다.(아손 그랩스트(2005), 김상열 역, 『스웨덴 기자 아손, 100년 전 한국을 걷다』, 책과함께)

때도 있었다. 웃고 울었으며, 더듬거리고 떨리는 목소리도 내었다. 젊고 늙은 목소리로 둔갑하기도 하고, 고품을 지르는가 하면 흐느낌이 나오기도 했다. 하여간 인간의 목청이 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감정을 충분히 살려 내는 것이었다. 이 소리꾼이 청중에게 주는 재미는 우리 서구인들이 연극을 보면서 느끼는 것에 해당된다. 그 밖에 어떤 형식의 무대 예술도 코레아에는 있지 않았다. 소리꾼은 책에서 이야기 재료를 선택하고 또 상상력을 발동시키기도 한다. (중략)

기분 전환으로 이러한 소극 대신에 소리꾼은 다른 이야기를 전개시킬 수도 있다. 주로 비도덕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청중은 배꼽을 잡고 웃어대면서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 하나가 인기를 얻게 되면 소리꾼은 하루 아침에 유명인사가 될 수도 있다. 그의 재치에 대한 소문은 시내에 두루 퍼져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저자 구석구석에서 사람들이 밀려온다. 소리꾼은 이때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시작해서 흥분이 절정에 다다르면 곧바로 그는 이야기를 돌연 중단하고 돈을 걷기 시작한다. 만약에 그 결과가 소리꾼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청중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고 이에 대한 보상을 서두를 때까지 모른 척하고 탄전을 피운다. 그런 뒤에야 비로소 이야기는 소리꾼의 적절한 주석과 함께 계속되는데, 그 효과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다시 계속되는 것이다.⁴¹⁾

위 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추운 겨울날 많은 청중을 모아놓고 책상 위에 책을 펴놓고 온갖 소리를 흉내 내고 애드립과 즉흥적 이야기를 섞어 가며 청중을 사로잡는 소리꾼이 있었다.

(나) 이야기꾼 중 이야기를 잘하는 소문난 이들은 유명인사로 통한다. 이야기꾼은 절정 대목에 이르러 이야기를 중단하고 돈을 요구한다. 청중들이 돈을 내면 적절한 설명과 청중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이야기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41) 아손 그렉스트(2005), 김상열 역, 『스웨덴기자 아손, 100년 전 한국을 걷다』, 책과함께, 226~229쪽.

여기서 아손의 눈에 포착된 공연자를 소리꾼, 또는 이야기꾼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둘이 동일인을 지시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소리꾼은 흔히 판소리를 하던 소리광대를, 이야기꾼은 재담과 각종 옛이야기(소설, 민담)를 전문적으로 들려주던 강담사(또는 강독사)를 지칭한다. (가)와 (나)는 정황상 판소리 광대에 해당하는 소리꾼이라기보다 이야기를 잘 하던 강담사에 관한 설명이다. 특별히 (나)는 「민옹전」의 주인공인 민옹과 같은 이야기꾼과 흡사하다. 즉, 이야기를 잘해 세간에 널리 알려져 양반이나 세도가의 부름을 받아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던 강담사를 의미한다.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나)의 내용이 조수삼의 요전법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야기꾼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중요 대목에서 구연을 멈추고 뜬을 들였다가 청중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수삼이 소개한 ‘요전법’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20세기 초에도 여전히 전기수가 18세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청중 독자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며 돈을 벌었음을 이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처럼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여전히 낭송, 또는 소리를 통한 이야기 향유가 일상에서 장소와 때에 큰 구애 없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⁴²⁾

42) 이와 관련해 아손의 기사 중 흥미로운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당시 일본 당국이 인기 있는 책들을 압수하려 했지만 소리광대 또는 직업적 이야기꾼의 머릿속에 책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생각해 압수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단기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일본 당국에서 이 책들을 압수하려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압수해봤자 책 내용은 전문적인 독자나 직업적인 이야기꾼의 머리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치지, 일본 당국은 이 계획을 백지화시켰다고 한다.” 아손 그랩스트, 김상열 역, 『스웨덴기자 아손, 100년 전 한국을 걷다』, 책과함께, 2005, 159쪽.) 이 또한 당시 이야기가 있는 서사문학(소설, 판소리 등)의 향유가 책으로 읽는 방식 외에 귀로 듣는 방식이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4. 나오며

지금까지 *The Korea Review* 수록 헐버트의 ‘Korean Fiction’ 전문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파악한 우리 고소설의 역사 및 작가, 작품에 대한 인식의 내용, 그리고 고소설 향유 방식에 대한 그들의 관찰 내용 등을 검토해보았다. 헐버트(1886~1907 거주)와 게일(Gale, 1888~1927 거주), 언더우드(Underwood, 1885~1916 거주) 등은 비록 외국인이었지만 수십 년간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학 관련 자료를 저술하고 연구하거나 문학작품을 번역하면서 초기 한국학 담론을 형성, 주도해 나갔다. 헐버트는 특별히 기록 서사물(한문학)보다 구전 서사물(설화, 소설 낭독)에 관심이 많았다. 구전 서사물에 대한 관심이 컸었기에 고소설의 존재 양상과 향유 방식을 보여주는 관련 자료들을 관찰자 입장에서 다수 기록으로 남겨 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헐버트가 관심 가졌던 구비 전승물과 국문 작품들은 작가 및 창작 시기를 알 수 없다. 또한 헐버트의 논의가 기록문학 및 한문학과의 영향 관계와 문학사적 위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헐버트의 시각은 일정 부분 한계 또한 노정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 헐버트와 그랩스트의 글을 통해 조선 후기에 소설 낭독 문화가 현저했으며, 한글소설의 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힌 것은 이미 앞선 여러 논문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이 지점을 새롭게 조명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기존의 연구를 보충하고 보완했다는 의미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헐버트의 증언 중에서 조선 후기에 한글소설을 읽을 수밖에 없는 독자층이 대다수를 이루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헐버트가 관찰했던 당시 한글소설의 일반적 풍속의 반영과 함께 그것의 광대하고 보편적인 보급의 원인과 현상 분석은 한글 소설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의의

를 지니기 때문이다. 아직 학계에서 흔히 한문독자층과 한글독자층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헐버트의 주장은 그러한 독자 구분 문제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 주고, 조선후기 식자층의 한문 실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와 고찰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1920~30년대 경성제대 출신의 국문학자들이 한국학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헐버트 등 외국인에 의해 마련된 한국학 논의와 고소설 담론은 그 정보와 학문적 깊이를 고려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검토를 수행하는 한편, 그러한 글에 소개되어 있는 정보(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정짓는 작업도 후속 연구에서 충분히 나타나야 할 것들이다. 아울러 아손 그랩스트의 소설 낭송 묘사와 요전법 관련 글처럼 관련 자료 역시 지속적으로 발굴,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헐버트와 게일 선교사는 한국문학을 보는 시각이 사뭇 달랐다. 두 사람이 한국학 연구와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동일 대상에 대한 견해 차이가 이후 한국학 연구 시각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했다. 따라서 개인적 관점 차이뿐 아니라 그 연구 결과가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까지 객관적으로 그 공과(功過)를 따져 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헐버트의 문학관, 고소설론이 당시 외국인 일반의 시각과 다양한 관점까지 종합한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히 요구된다. 차제에 향후 여타 외국인 기록물을 매개로 한 고소설 향유 및 독서 문화에 대한 논의는 개인적 차원에서 외국인별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집단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외국인의 인식의 제 층위와 특성을 살피는 작업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할 때, 우리 고소설의 실제적 존재 양상과 작품과 작가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후속 연구를 기약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김부식, 「김유신 하(附 김압)」, 『삼국사기』 권43. ; 이병도 역주(1984),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 김승우(2011), 「구한말 선교사 호머 헐버트의 한국시가 인식」, 『한국시가연구』 제31집, 한국시가학회.
- 마이클 김(2004), 「서양인들이 본 조선후기와 일제 초기 출판문화의 모습 : 대중소설의 수용과 유통 문제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19집, 열상고전연구회.
- 박지원(2009), 김철조 역, 「관제묘기」, 『열하일기 1』, 돌베개.
- 아손 그랩스트(2005), 김상열 역, 『스웨덴기자 아손, 100년 전 한국을 걷다』, 책과함께, 2005.
- 앤드루 샌더즈(2003), 정규환 역, 『옥스포드 영문학사』, 도서출판 동인, 2003.
- 이민희(2011), 「1920~1930년대 고소설 향유 양상과 비평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28집, 순천향대 인문과학연구소.
- 이상현(2009), 『제임스 게이일(James Scarth Gale)의 한국학 연구와 고전서사의 번역 : 게이일 한국학 단행본 출판의 변모와 필기, 야담, 고소설의 번역』,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 이운석(2011), 『항목동 세책 춘향전 연구』, 경인문화사.
- 정병설(2005), 「조선후기 한글소설의 성장과 유통-세책과 방각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제100집, 진단학회.
- 정성화(2005), 『한국 관련 서양고서』, 명지대출판부.
- 조동일(1996), 『세계문학사의 허실』, 지식산업사.
- _____(2005), 『한국문학통사 1』(제4판), 지식산업사.
- 조수삼, 「전기수」(傳奇叟), 『추재집』 권7.
- H.B. 헐버트(2006), 신복룡 역주, 『대한제국멸망사』, 집문당.
- J.S. 게이일(2006), 신복룡 역주, 『전환기의 조선』, 집문당.
- Homer B. Hulbert(1906), *the Passing of Korea*, New York : Doubleday, Page & Company.
- James S. Gale(1895), “A Few Words in Literature”, *The Korean Repository III*,

January-December.

Sung-Hwa Cheong & Alexander Ganse(2008), *Bibliography of western language publications on Korea 1588~1950*, Seoul ; Myongji Univ. Press.

W.E.Skillend(1968), *Kodae Sosol : A Survey of Koran Traditional Style Popular Novels*, London : Unwin Brothers Limited.

원고 접수일: 2012년 10월 31일

심사 완료일: 2012년 11월 22일

게재 확정일: 2012년 12월 4일

ABSTRACT

The Actual Nature of the Understanding and Enjoyment
of Gososeol (古小說) as Seen through the Documentary
Records of Foreigners of the Early 20th Century
- focusing on the article ‘Korean Fiction’
in *The Korea Review* (1902) -

Lee, Min Heui

There are not enough extant written sources which allow us to reconstruct the reading culture of Gososeol (古小說, Korean classic novel). In such a situation, some the documents left by foreigners who wrote about the reading culture and enjoyment of Gososeol works can be an important complementary source. Especially, *The Korea Review* (1902), which contained an article entitled ‘Korean Fiction’ by Hulbert, is a good example; Hulbert introduces in this article the history of Gososeol,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works, and the enjoyment aspect and real life of old novel readers. Therefore, we can judge, from these articles, how foreigners regarded the Korean old novel 100 years ago. Hulbert was interested in Korean classic literature, studying various fields and staying in Korea for about 20 years, which is why he wrote an article such as

‘Korean Fiction’. And though the Swedish journalist Arson Grebst stayed in Korea for only 4 months, he also recorded vividly how Korean people enjoyed their old novel works at the time, and how foreigners regarded the Korean old novels. They commonly recognized that Pansori and old novels are oral narrative and recorded the perception that foreigners had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ansori and Gososeol enjoyment under a multi-faceted academic interest. In addition, they also observed and precisely recorded the reading scenes of storytellers and scenes of Pansori.

In the article ‘Korean Fiction’, Hulbert identified the Korean-text novel, rather than the Chinese-text novel, as being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developmental processes in the history of Korean old novels. This is opposite to the perspective of Thomas Gale, who was famously pro-Korean. Hulbert emphasized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novel genre, tales and folk art. It is also possible to confirm, based on the documentary evidence left by these foreigners, that the reciting of Gososeol works in the form of an oral text - such as Yojeonbeop (邀錢法) - was a general occurrence, and more popular than its reading in the form of a book text. This demonstrates that the documentary records of foreigners are important and useful material in surveying how reciting reading instead of silent reading was popular in the early 20th century.

